인생부도 막는 ‘심리계좌’ 관리

(아모스 9:1~15)

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2.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3.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4.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생부도 막는 ‘심리계좌’ 관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생부도 막는 ‘심리계좌’ 관리

심리계좌라는 말은 재무상담사 이지영 씨의 책 제목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책의 제목은 “심리계좌 : 돈에 대한 다섯 가지 착각”입니다. 이 책에는 모토가 있는데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심리계좌부터 관리하라.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당신의 돈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돈을 너무 쉽게 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돈에 대한 다섯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착각, 저축착각, 소비착각, 자산착각, 부채착각으로 나누어집니다. 본래 소득, 저축, 소비, 자산, 부채는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음 속 회계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심리계좌에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돈을 버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리계좌란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회계장부입니다. 이 회계장부에 잘못된 개념이 사로잡힐 때 실제로 손해를 보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같은 10만 원의 소득이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길거리에서 주운 돈, 적금에서 나온 이자의 경우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10만 원은 심리계좌에 공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때로는 임금에도 적용될 때가 있습니

다.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심리계좌에 뼈 빠지게 일한 대가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돈으로 기록된다면 그 돈은 하루 만에 다 사라져버려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도 버티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얼마든 심리계좌에 공돈으로 기록된 이상 조절할 수 없는 헛된 소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축에 대한 착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저축이자보다 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저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돈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대출을 갚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착각에 빠져서 이자를 빨리 갚는 것보다 돈을 저축한다고 합니다.

소비에도 착각은 일어납니다. 퇴근하는 길에 쇼윈도에서 눈길을 끌어당기는 옷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니 50% 세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구입을 하지만 심리계좌에서 소비착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 옷이 본래 5만 원이었고 아무런 세일을 하지 않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일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5만 원이 내 계좌로부터 사라진다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50% 세일을 통해 물건도 사고 5만 원을 벌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구입한 옷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면 5만 원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일이나 할인이라는 개념이 개입하게 되면 소비의 태도가 완전히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계좌에서 일어나는 착각들은 경제개발시대를 지내 온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버는 한도 내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일반화 된 요즘 자녀 세대에서는 먼저 쓰고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말이 좋아 신용이지 빚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심리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수 있기에 가슴이 뜨끔뜨끔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높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처럼 여겨집니다만 실제로는 빚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부,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캐피털론, 카드론, 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의 수도 없이 많은 빚들이 다른 이름으로 둔갑하여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앞서 살펴보았던 착각들보다도 더 무서운 구멍이 있음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진정한 심리계좌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으로 인해서 잘못 지불되고 소비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줄줄 새나가도록 심리계좌가 무

방비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리계좌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살펴보았던 돈과 관련된 심리계좌를 관리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심리계좌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소비가 삶에서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손해는 육체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인생파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돈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시간도 조심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을 지불할 대상을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자체의 지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지불되는 것에 대해 쉽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불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음이 지불되었기에 그 대상을 마음에 품게 되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통해 네 가지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옆에 하나님이 서계신 것을 보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기둥이 넘어지고 문지방이 흔들리는 붕괴현상이 일어나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이 깔려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그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칼에 도륙 당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점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남 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 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무너질 것으로 예언되는 남 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는 136년이 더 지속됩니다.
언급된 환상대로만 해석한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크게 무서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기껏해야 남 왕국 유다 사람들 몇 십 명이 죽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몇 십 명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예루살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북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소 뜬금없는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옆에 서계시면서 성소를 무너뜨리시고 모두를 진멸시킨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번제단에 멸망의 이유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상번제였습니다.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1년 된 어린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물로 바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 번제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번제단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민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에서 번제의 생활화가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북 왕국에 살든 남 왕국에 살든 성전의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통해 어린양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가 선민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번제를 생활화하지 못하면 율법과 계명도 지켜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의 생활화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제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번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번제의 어린양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번제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민의 삶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의 지불이 기록되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항목에 마음을 지불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재무상담사의 책에서는 돈을 벌고 쓰는 상황에 대해 심리계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아모스 선지자는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지불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멸망 예언처럼 인생은 파탄 나고 부도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조차 파탄과 부도는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곧 마음속에 있는 회계장부인 심리계좌의 관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함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주어질 때에 반복하여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심리계좌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기를 반복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마음지불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나, 세상에 정복되고 찌든 나, 술과 마약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버린 나, 세상으로 의식과 마음이 가득 차버린 나를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번제단의 어린양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번제의 생활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심리계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지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번제의 과정이 없다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마음을 드려야 하는 대상이심을 외우고 있을지라도 번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제로 마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선민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선민은 이것 한 가지를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하는 것이 번제의 생활화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 찌든 나, 세상에 정복된 나, 세상을 좋아하는 나, 세상에 취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삶의 현장에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선민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이러한 신앙인들의 삶이 흔들리고 정복되려 할 때에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리계좌의 관리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선민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민의 정체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스나 애굽이나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민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심리계좌였습니다. 마음의 회계장부에서 대체 무엇을 향해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유전 죄의 체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묶인 채 지불되는 마음을 번제단의 어린양과 함께 끊임없이 죽은 것으로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며, 하나님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지불되어야 함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선민들의 심리계좌와 이방인들의 심리계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선민의 심리계좌는 하나님께 지불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선민의 심리계좌입니다.
2~4절을 보면 선민들이 어디로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심판하시리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스올, 하늘, 갈멜 산 꼭대기, 바다 등은 삶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선민의 잘못은 심리계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죽이는 상번제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 임하시며 선민들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마음을 지불함으로 인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누수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번제단의 어린양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매듭지으면서 저는 한 가지 예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처럼 진정성 100%에서 단 0.01%도 모자라지 않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에 모조리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진 환상과 예언들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며, 또한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와도 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볼 수는 있으나 천국에 속한 것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사로의 손끝을 통해 물 한 방울조차 옮겨갈 수가 없었기에,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부자만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부자와 같이 세상에 마음을 지불한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후회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은 훌륭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이러한 애국심조차도 후회할 선택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후로도 그 자리에 걸맞은 행동을 위해 온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고 일을 잘 마쳐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었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대통령 자리에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을 가질 수 없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을 찢으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시켜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때에 느낀 영광과 행복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죽어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수석입학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100억을 얻으면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

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당첨의 순간을 일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억울한 시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심을 감추어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사랑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반사적인 사로잡힘입니다.
마음이 헛되게 지불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하고자 하고 없기만을 바라는 투병의 순간, 절망적인 환경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대체 왜 건강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을까?”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계장부의 심리계좌에 하나님의 기준을 새겨야만 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지불하느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결국 이를 갈며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기준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미가 보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기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선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도 구멍은 사라집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사느라 구멍이 나있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속속들이 들어와서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땅을 버렸음에도 이 땅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환상을 통해 바로 구약의 선민들에게는 번제의 생활화이며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주님이 내신 길을 가면서 나의 심리계

좌를 관리함을 통해 하나님께만 마음이 지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수 되지 않게 하시고, 구멍 난 삶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들어차는 기가 막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